

의대 뛰어넘은 약대 경쟁률...의약학 계열 강세

2022학년도 지역 대학 수시 경쟁률 작년보다 상승
조선대 약학과 31.6대 1...한국에너지공대 24대 1

광주·전남 주요 대학 2022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특히 14년만에 부활한 약대 학부 경쟁률은 조선대 약학과가 31.6대1로 집계되는 등 수시대1을 기록했다.

15일 지역 대학 수시모집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전남대는 3,163명 모집에 2만 5,591명이 지원해 평균 8.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은 지난해 6.44대1보

다 크게 올랐다. 캠퍼스별로는 광주 캠퍼스가 9.47대1(지난해 7.27대1), 여수 캠퍼스가 3.65대1(지난해 3.71대1)이다.

전남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 일부를 줄여 정시모집으로 전환한데다 약학부 모집이 시행되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수시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학생

부 교과(지역인재전형)는 738명 모집에 6,878명이 지원해 9.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 최고 경쟁률은 사회학과가 24대 1로 가장 높았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일반전형, 24명)에서 17.29대 1, 학생부 교과(지역인재전형, 38명)에서는 10.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부의 경우 43명 모집에 학생부 교과(일반전형, 13명)에서 29.38대 1을, 학생부 교과(지역인재전형, 18명)에서는 2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는 3,695명 모집에 1만9,737명

이 지원해 5.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 경쟁률 4.9대 1보다 높아졌다. 의예과가 12.2대1을 기록한 가운데 약학과와 경우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 31.6대 1,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에서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호남대는 1,566명(정원 내) 모집에 7,880명이 지원해 평균 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전년도 5.6대1보다 낮아졌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물리치료학과가 40명 모집에 451명이 지원해 11.3대 1, 임상병리학과 25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 10.9대 1, 간호학과 160명 모집에 1,341명이 지원해 8.4대 1, 응급

조학과 50명 모집에 402명이 지원해 8대 1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1,599명 모집에 6,602명이 지원해 4.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4.35대 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간호학과가 10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동신대는 1,626명 모집에 6,87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23대 1을 기록했다. 학생부 교과로 12명을 모집하는 한의예과에 388명이 지원, 경쟁률이 32.33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호학과 11.29대 1, 물리치료학과 10.54대 1 등의 순이었다.

순천대는 1,389명 모집에 6,732명이 지원해 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약학

과는 수시모집 15명 모집에 442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목포대는 평균 4.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4.8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약학대는 전체 19명 선발에 465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2년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는 학부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90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정원 내, 학생부종합전형)에 2,166명이 지원해 2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지역 대학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건 계열의 관심이 높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으로 예방의 개념이 중요해진 데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상당 지원자는 학생이 늘어 대학지원의 양극화 현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15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지구 한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북부경찰서,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 안심순찰대원들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국감 촉구 철회”

여수 관광발전법시민운동본부, 시의회 결의안 규탄

여수시의회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국감검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 관광발전법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여수시의회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국감검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회는 지난 7일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국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12일 경관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경관에 영향을 있다면 개인적 의견이 아닌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적 반대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시민운동본부는 “리조트 사업이 초기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관광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투자하려는 대기업의 투자회향과 투자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법시민운동본부는 ▲생활형숙박시설 국감검사·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즉각 철회 ▲더불어민주당 반대 의원 내년 공천 배제 ▲지역민과 상생발전 방안 마련 ▲전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여수시·미래에셋과 협의·소통을 통해 경도 사업 정상 추진 등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조성 본격화

내년 3월 개막 ‘햇빛’ 주제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전당권역의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문화전당 야간경관기반 조성사업’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자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사를 선정해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개

막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5·18민주회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시비 40억 원 확보 등 5·18민주광장을 세계적인 역사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동구의 이같은 계획은 광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명성과 함께 미디어아트와 연관된 5월 민주화정신 등 역사와 문화 산업 중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속의 예술도시, 문화중심도시로

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빛의 분수대’는 5·18민주회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광주 시민들이 들었던 ‘햇빛’을 주제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구는 연말까지 총괄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세계적인 예술 작품으로 동시대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5월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대병원 광주 학동 ‘잔류’ 가닥

의대 부지에 신·증축 방안 정부와 협의

전남대학교 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선언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병원 측이 현 광주 동구 학동에 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병원에 있는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총 1,500병상으로 병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관계자 등은 15일 “학동 전남대 병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을 확보, 신·증축을 통해 현재 1,000병상 규모를 1,500병상 규모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과대학(분과 1~4학년) 학생들은 현재 화산전남대병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과대학 부지가 교육부 소유여서 땅을 매입하거나 무상대여를 하려면 정부 등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과대학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병원 신·증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며 나주시와 광주남구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1982년 건립된 전남대병원은 건물 노후화와 병실 부족,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간부 공무원 부동산 투기’ 경찰,장성군청 압수수색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장성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 간부 A씨를 압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대는 A씨의 전 근무지, 근무지인 장성군청,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직무 중 취득한 전임 근무지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직 공무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 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비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p> <p>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p> <p>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p> <p>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062-382-5500</p>